

[목회자 모임]
십자가로 가는 길 - (4) 내가 곧 길ियो
(요14:6)

2020. 5. 1. 이현래 목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몰라서 제자들은 방황하고 있는 자리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이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요13:36)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겠다(눅22:33)고 했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눅22:34)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가는 길과 베드로가 오는 길이 전혀 다른 길이니 서로가 말이 안 맞는 그런 형편이다.

14장에 오면 이것이 더 구체적이 되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천당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처소를 예비한다니까 그게 천당이 아니겠는가했다. 천당이 아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요14:5) 그랬더니 “내가 곧 길ियो.”(요14:6)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길도 아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은 길이 없었다. 모세에게 길을 물었으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겠는가? 구름기둥이다, 불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것이다. 그것이 구약이다.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따라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यो.”(요14:6)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신약이다.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

룩하리라.”(히8:10)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세운 새 언약이다. 신약에 와서도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고 해버렸으면 도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믿으면 간다든가, 어떤 교리를 믿으면 간다든가 이런 것은 신약에서는 안 맞는 말이다. 구약 같으면 믿을 수 있는 말인데 신약에는 맞지 않은 말이니까 신약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구약을 못 벗어난 것이다. 왜 그런가? “내가 곧 길이요.”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예수가 길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기가 길이다. 내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간에 그 길이 어디냐고 물으면 내가 곧 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옥도 내 안에 있고 천국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따로 없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당연하다. 내가 곧 길이다.

희랍인들은 무엇이든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천국을 아는 데,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아주 방해거리다. 기독교가 서구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이유가 서구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니까 방법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까.

방금까지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길을 물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요 14:6)라고 한다. 그래서 또 물었다.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14:8)라고 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고 하니까 또 아버지가 어디로 가 버리고 없다. 남는 것은 예수 한 사람 밖에 남지 않았다. 길을 묻든지 뭘 묻든지 간에 뭘 물어도 자기 자신이다. 내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암담한 일이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생명의 세계는 다 그렇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을 보고 다른 개구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개굴개굴 소리를 지를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겠는가?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지 않겠는가? 연못이 있으니까 거기에 개구리도 알을 까고 도롱뇽도 알을 깬다. 도롱뇽이 먼저 부

화를 하고, 다음에 개구리가 부화한다. 이 두 놈은 소리가 다르다. 개구리로 태어난 놈은 도롱뇽의 소리를 할 수가 없고, 도롱뇽으로 태어난 놈은 개구리 소리를 할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어지니까 도롱뇽의 소리는 도롱뇽의 길이고, 개구리 소리는 개구리가 길인 것이다. 개구리가 되지 않은 한은 그렇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소에게 너는 어떻게 풀을 뜯어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풀만 먹고 못 산다. 개도 그렇다.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풀만 먹고는 못 산다. 소에게 어떻게 하면 풀을 먹고 살 수가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위가 4개 있어야 된다고 하겠는가?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다. 초식동물은 거의 다 위가 4개씩 있다. 그 속에 효소가 있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소도 “내가 곧 길어요.”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 내가 길이라는 말은 내가 안 되고서는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니면 풀을 먹고 살 수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예수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별도로 예수는 예수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따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서양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것이다. 물론 동양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객관화가 되어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객관화 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갈 수가 있는가? 안 된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교리를 믿는다고 예수와 같이 되겠는가? 좋은 신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그분과 같이 가겠는가?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분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따로 갈 방법이 없다.

거기서 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사랑이니,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한다. 정말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분들도 많다. 선교지에 가면 정말 자식처럼 생각이 되고, 누구라도 그런 곳에 가면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정이다. 우리인간도 어떤 형편에 가면 정말 자기를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은 다른 문제다.

“내가 곧 길이요.”(요14:6) 하는 이 가운데 신약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산다고 할 수 없고 “내가 곧 길이요.”(요14:6)라고 한다.

대구에서 형제들이 난관에 부딪친 것이 그것이다. 내가 한 말을 듣고 좋아서 따라왔다. 내가 좋아서 왔으니깐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내가 한 대로 해보려니까 안 된다. 그때 상당히 방향을 했다. 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제자들이 꼭 그러지 않았겠는가?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아무리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생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문서답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마 17:20)고 대답했는데, 이 말이 대답이 아니지 않은가?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맨 처음에 워치만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소개 받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첫 느낌을 가졌다. 그것이 내가 첫 느낌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다.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없으면 그 말을 못한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했고, 기다리면서 실수도 했고, 또 기다려도 안 되고, 집구석은 시끄럽고,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겪는다. 이것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말을 해놓았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뭘 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다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경을 배운 목사님은 평생 성경만 연구하신 분이였다. 그래서 성경 강해를 할 때 보면 성경 강해를 참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나는 다른 말씀은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말 존경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분도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가 있다. 그분이 본 책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연구하면 할 수 있다.

옛날 초창기에 한 동안 한*직 목사 설교집이 유명했었다. 우리나라 교역자들 가운데 그 설교 집을 안 가진 교역자들이 별로 없었다. 그것을 보고 설교를 많이 했다. 남이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 밖에 안 되는 것이 있다.

광양에 김*섭 장로라고 구례교회 목사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 젊어서는 전도사로 설교도 많이 한 분이다. 뒤로는 나이가 들고 돈이 좀 있으니까 해마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돕고 있었다. 순회를 하시면서 얼마씩 돕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알게 되었고, 남도를 순회할 때는 그 집을 꼭 들려오고 했다. 그분이 테이프를 들고 밤중에 전화가 왔다. 내가 누구라고 하면서 테이프를 들어 보니까 반 밖에 듣지 않았는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말이다. 내가 설교도 많이 해 보고 설교집도 많이 보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은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말씀 테이프를 보내줄 수 있느냐고 해서 복사해서 많이 보냈다. 이*택 형제가 매일 복사를 해서 박스로 보냈다. 수없이 갔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돈으로 도와주던 교역자들에게 말씀 테이프를 주었다. 돈을 줄 일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듣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주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교역자 모임에 오신 분들도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테이프를 들었는가? 안 들었다. 테이프가 얼마나 많은가? 돈 줄때는 반갑지만 테이프를 보내니까 재미가 있겠는가? 다 처박아놓았던 것인데 뒤로 알아서 듣게 되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이 바로 길이다. 그 사람과 한 자리에 있어야 그 말이 나오지 한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고 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그 자리에서가 아니면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위치에서 이 말이 나온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알

리가 있겠는가? 알 수가 없다.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저가 하나님도 없고 자기뿐이란 말인가, 유아독존이란 말인가?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만 딱 남았다. 이 예수와 하나가 안 되면 아무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 보혜사에 대해서도 그때 나는 애를 많이 먹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도대체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성령을 받아보려고 쫓아 다녔다. 내가 만일 그때 방언을 했으면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었다. 나는 못하고 말았다. 못하고 만 것이 천만다행이다. 만일 그때 내가 방언을 했더라면 이게 보혜사라고 하고 거기서 끝났을 것이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보혜사 성령을 부르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과 별개다. 집회에 가 보면 이제 막 온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가? 모른다. 모르는데 방언이 왔다는 것은 성령이 왔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옆에서 봐도 신기하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열심이니까 교역자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예수를 안 것이 아니다. 조*기 목사가 보혜사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설교 할 때 보면 ‘곁에 있는 자’라고 한다. 늘 성령과 같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늘 성령과 같이 있는가? 거의 불가능하다. 무당들도 영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 끼를 발동할 때만 그렇지 평소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만들면 막 그 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동자귀신, 처녀귀신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 식이니까 나는 나고 보혜사는 보혜사다. 나는 나고 성령은 성령이다. 따로

다 ‘같이’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대답한다. 그때는 꼭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것 밖에는 길이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다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신학자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해놓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다. 그러니까 막막한 이야기가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까 성화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합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니 막막해진다. 그러면 사역이 필요가 없다. 성령이 하시면 다 되는데 사람이 거기에 뭘 더하겠는가? 성령을 받으면 다 끝난다.

오순절 계통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방언을 해야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전부다. 내가 오순절 교회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는데 방언 때문에 못 들어갔다. 방언을 못 하니 입문이 안 된다. 그 선교사가 나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해주고 신경을 많이 썼다. 이제 새로 개척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람 하나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내외분이 열심히 기도해주었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었다. 안 돼서 지금 여기에 온 것이다. 되었더라면 그쪽으로 가서 평생 성령만 이야기 하다가 말 뻔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14:26)고 말했다. 초대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안 된다. 바울시대에 와서 다른 말이 나온다. 보혜사,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만도 아니다.

다음에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생명으로 접근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 이것은 생명의 문제가 아닌가? 보혜사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로 들어와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쉽고 당연한 문제가 아닌가? 알지 못하는 성

령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접붙임 되면 저절로 진액이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접붙인데 가보면 나무 두 개를 잘라서 붙여놓으면 한 덩어리가 되어 살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열리게 된다.

거기에는 성령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1)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분과 접붙여져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접붙여진다는 것이다. 요한의 말로하면 거듭난다는 것이다. 말은 다르지만 같은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생명으로 하나된 것을 말하지 성령으로 하나된 말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같이 충만할 때는 하나인 것 같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서로 남남이고 따로따로다. 그렇게 되면 접붙여진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 드리는 생명의 길과 지식의 길이 이렇게 다르다.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속해서 지금도 흐른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의 길이다. 지식의 길은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길이다. 생명을 객관화시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아니다. 노자가 말한 대로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생명은 객관화시키면 생명이 아니다. 금붕어 한 마리도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이미 죽은 것이다. 금붕어가 아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생명을 쪼개놓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명을 다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생명은 못 만든다. 생명을 본받아서 어떤 기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생명 자체는 만들 수가 없다. 컴퓨터를 보면 사람의 머리를 기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것을 확대시켜서 우리의 기억력보다 훨씬 많은 기억력을 만들고, 우리의 연산력 보다 훨씬 많은 연산력을 만든다. 사람의 머리를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기계적으로 복사해 놓은 것이니까 생명이 안 된다. 사람은 낳아놓으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

마지막 싸움은 생명의 싸움이다. 생명이나? 지식이나? 이 문제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나라고, 세상 나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나라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대로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졌다는 말은 지식 세계의 종말을 말한다. 지금은 너무 지식이 갈라져서 서로가 끝을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인문학 세계에서 융합, 융합의 길을 찾고 있다. 그런데 융합을 찾는다고 지식이 생명이 되겠는가? 아무리 찾아도 도로 지식이다.

지식은 죽은 것이지 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고 생활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생명이 전달되고 전해지는 것은 전혀 지식과는 관계가 없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다고 아이를 잘 낳는가? 박사 학위를 받은 여자가 아이를 더 잘 낳겠는가? 오히려 박사학위 받느라고 늦어버리면 아이를 낳기 어렵다.

생명과 지식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전혀 길이 다르다. 그렇다고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지식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식으로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도저히 없다. 마지막 모든 것이 멸망당한다고 하더라도 생명만 남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지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우리가 사는 100년 이내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 앞으로 100년이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만큼 발전이라고 할까, 확대라고 할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종말이 어디로 갈까?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종말은 뻔한 것이다. 이 속에서 아무 것도 아닌 아들 낳고 딸 낳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지식이 높아져서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 높아지니까 인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서 인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아무 것도 아닌 무식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막을 수 없다. 지식으로 그것을 무시하려고 해도 안 된다. 지식은 지식으로 필요한 것이고 일할 때 필요한 것이다. 생명은 생명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내가 예수와 연합되는가? 이 문제다. 마지막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와 나는 무슨 관계인가? 이것이 고민거리

가 되었다. 이제까지는 잘 왔는데 막상 가려니까 뭔가 딱 붙지 않는 그런 것을 느꼈다. 하나가 안 되는 것을 느꼈다. 그분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이런 길을 가는 것을 다 알았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안 되면 그냥 남남이 되고 만다. 거기서 알아진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해서 부르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분을 주셨구나.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전에는 그 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1:7)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었다. 도저히 그게 안 된다. 다 좋은데 그게 안 된다.

막상 알고 보니까 그분의 생명과 내가 접촉이 안 되었다. 그냥 허망하게 끝날 뻔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했다. 만일에 그 길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면 내가 일생 산 것이 형식만 갖추다 말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내 인생에 어째서 이런 은혜의 순간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15장을 보면 다 그 말이다. “나를 박해(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핍박)할 것이요.”(요15:20) 나를 사랑했으면 너희도 사랑할 것이다. 전부 다 나와 너희들이 같다는 것이다. 똑 같은 때가 언제 오겠는가? 어디서 우리가 똑같아지겠는가? 같은 자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말인데, 어디서 예수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겠는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요15:26,27)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서, 그와 연합된 사람으로, 그 연합된 사람이 곧 새 생명이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접붙여진 사람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왔다. 이것을 전해야 될 일이다.

이 속에서 간단하게 복음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는지 막막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생각을

했다. 사람을 만나면 뭘 간단하게 전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 이 말 저 말 해봤자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 말로 딱 말할 수 있는 말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렵다.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 같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람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묻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같다가 사람 같다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겠는가?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형상이 나온다.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분을 나타내기에 딱 맞도록 지어졌다는 뜻이니까 당연하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같음이 드러났다는 말은 형상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서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1:3)고 말한다.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보였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신이 아니고 형상이다.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형상의 완성이다. 등은 불빛을 완전하게 반사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그분을 형상화 시키는가?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겠는가?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것,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못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나는 그분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분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니까 다양한 면으로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다.

다 예수와 똑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들어도 다른 면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된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 행적이 나타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는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행적을 보게 되면 거의 80~90%가 행적뿐이다. 그 행적의 80%가 표적이고 이적이다. 그것을 빼면 아무 것도 없다. 그 표적이 지금 생각하면 필요 없는 표적 같은데, 필요 없는 표적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의 어떡함을 표현하기 위한 표적이다. 그분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신 것이다. 자기 위치를 그대로 100%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소원도 어떻게 되든 맑은 유리가 되어서 빛이 들어오면 빛을 완전히 반사하고 색깔이 된다면 그 색깔을 완전히 반사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흙과 같다. 받은 대로 생명을 증식하고 표현하는 존재이니까 흙과 똑 같다. 씨를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받으면, 그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몇 %든지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형상으로 쓰여지고 번식을 위해 쓰여진다.

창세기를 읽으면 너무 완전하다. 인생을 표현하기에 너무 완전하다. 나는 한쪽으로는 그분의 형상이고, 다른 쪽으로는 그분의 배필이다. 그분의 어떤 것이 들어오면 나는 다시 또 재생산해 낼 수 있다.

사람을 만나 전도한다면 이 문제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다. 알고 보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정녕) 죽으리라.”(창2:17) 했을 때 아담은 그것을 먹고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고, 흙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숫자적으로 800년을 살았다거나 900년을 살았다는 것이 산 것이 아니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고하게 심어준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형상 말고 다른 것을 살려 내고 싶겠는가? 다른 것을 나타내면 자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허무해진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는 거기에 내가 쓰여지면 최고의 영광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1:3) 너무나 감사한 은혜다. 사람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어서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게 하고, 죽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십자가로 가는 길까지 그분은 그분대로 길을 가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길을 가고 있다. 어디서 만날 것인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버리고 가버렸다.

복음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와 그 자리에서 만나

지면, 결혼하면 나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고 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대답이 내가 너의 배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득이 하다는 것이다. 창세기 2장에 가면 깊이 잠들게 하셨다. 배필이 없으므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배필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버린 이유를 알게 되지 안 그러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는데 말은 고맙지만 그것은 내게 해답이 안 되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했는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버리신 이유가 나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알아진다. 나는 그가 없으면 배필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서 백성을 얻기 위해서, 깊이 잠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잠든 것만큼 나와 하나가 된다. 깊이 잠들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 왜냐하면 깊이 잠들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키는데, 마취를 시켜놓고 확인해 본다. 굽어보고 손도 만져보고 말도 시켜 본 후에 완전히 마취가 되어야 메스를 가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완전히 마취가 되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신 분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완전히 마취가 되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우리가 배필을 얻게 된다. 옛날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그의 증인들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 교회가 된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한다. 이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 다 포함되고 하나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 안에 있다. 다 거기서 나온 말이다.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만 지키려고 생각해 보라. 되는가? 안 된다. 어쩌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신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생각해 보라. 구약의 율법은 조항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좌우지간 꺾데기라도 그대로 될 수가 있다. 신약의 조항은 꺾데기라도 지키기 어렵다. “네 이웃을 네 자신(몸)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흉내만 내기도 어렵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네 이웃을 네 자신(몸) 같이 사랑하라.”(눅10:27)는 이 말은 아주 간단하고 요약되어 있지만 그 말은 우리가 실행이 불가능하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러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야 한다. 마치 시집을 간 사람처럼 나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는 것이다. 왜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는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로마서 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시대에 오면서 복음은 이렇게 실재화가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밖에 못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밖에는 못했다. 그런데 바울에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계시를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다. 거기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생겼다. 새 생명의 길이 생겼다. 옛날에는 새 생명, 새 생명 하면서도 새 생명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보니까 연합한 생명이 새 생명이다. 나 혼자 살 때는 혼자 있는 생명이니깐 새 생명이 아니고 옛 생명이고 연합하면 새 생명이다.

세상은 이것이 안 된다. 다 해도 연합은 안 된다. 교회는 다 안 되어도 이것은 되어야 한다. 생명은 연합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생명은 연합을 해야 자식도 낳고 힘도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는 힘이 없다. 교회를 이론적으로 해놓으면 교회 자체는 힘이 없다. 차라리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낫다. 자유주의적인 계통의 신학에 가보면 사람들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가 안 되고 열심도 없다. 그런데 무식한 것 같지만 교리가 있는 곳에 가면 열심도 있다.

그분과 연합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 연합 안에서는 저절

로 생산이 된다.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 것은 당연하다. 잘 나고 못 난 것이 없다.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는다. 우리도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는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감사합니다.